

# 渤海 建國 參與集團의 研究

林 相 先\*

- I. 머리말
- II. 既存 研究成果와 問題點
- III. 建國關聯 史料의 再檢討
  1. 建國 관련 史料의 內容
  2. 建國과정의 概要
- IV. 渤海建國時 參與集團의 分析
  1. 東走集團
  2. 天門嶺戰鬪 以前에 參與한 集團
  3. 建國 前後에 參與한 集團
- V. 맺 음 말

## I. 머 리 말

발해는 696년 營州에 거주하던 契丹人 李盡忠과 孫萬榮이 일으킨 반란을 계기로 이 부근 에 거주하던 고구려유민과 말갈인이 唐의 지배를 벗어나 동쪽으로 탈주하면서 그 서막이 열리게 되어, 이들 東走集團에 영주로부터의 동주과정 중의 인근 지역에서 귀속해 온 여타의 集團이 보태어지면서 마침내 698년 東牟山에서 건국이 완료되었다.

이러한 발해의 건국과정은 오늘날 渤海史를 둘러싸고 논의되고 있는 연구과제 중에 많은 쟁점들이 내재되어 있는 분야이다. 예를 들면 발해 건국의 始祖의 문제, 발해 건국의 主體民族의 문제, 발해가 건국한 地點의 문제, 발해 領域의 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발해 건국에 대하여 그동안 적지않은 先學들의 의견이 있었음은 위의 사실로 미루어 응당 당연한 일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종래에 발표된 연구는 발해 건국과 관련된 史料 중에 서술에 유리한 부분만을 근거로 삼아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발해 사료에 내재하는 자료간의 모순점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돌리

---

\* 서울시립미술관 전임전문직.

지 못한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발해 건국과 관련된 기본 사료를 재검토하여 일련의 建國過程을 재구성하고, 이 과정에 등장하는 각 集團의 성격을 구명해 보기로 한다.

발해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말미암아 발해 건국에 대한 본고의 내용이 혼미에 빠져있는 이 부분의 해석에 작은 실마리라도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면 본고의 존재 이유는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 II. 既存 研究成果와 問題點

종래 발해의 건국에 대한 논의는 주로 발해 건국자의 出自에 관심이 두어져 大祚榮(혹은 乞乞仲象)의 종족적 귀속이 高句麗系인지 靺鞨系인지를 구명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장에서는 발해의 건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국자의 종족계통 구명만으로는 종합적인 歷史像 구축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건국과정과 참여집단을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성과를 검토하기로 한다.

池內宏은 1914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발해 건국의 시간적 遷移를 설명하고, 契丹 출신의 李楷固가 大祚榮과 乞四比羽를 토벌한 것은 久視 원년(700)이라고 단정하였다.<sup>1)</sup> 여기서 이해고의 토벌을 구시 원년으로 주장하는 근거는 《新唐書》 契丹傳에 보이는 이해고와 駱務整에 의한 구시 원년 ‘討契丹破之……乃是有功’이라는 기록과 《舊唐書》 狄仁傑傳의 聖曆 3년(700) 6월의 이해고와 曷勿諷의 ‘討契丹餘衆擒之’라는 기록이 《舊唐書》 渤海靺鞨傳의 ‘率兵討其餘黨’이라는 내용과 동일한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데에 있었다.

津田左右吉은 池內宏과 달리 이해고의 거란 토벌과 《新唐書》 渤海傳의 대조영의 토벌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거란 토벌은 구시 원년이나 대조영의 토벌은 대조영이 振國王으로 칭하기 이전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이해고의 征討가 1회가 아닌 2회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sup>2)</sup>

金毓黻은 발해 관련 資料를 집대성한 《渤海國志長編》의 叢考에서 고구려가 망하고 粟末靺鞨의 大氏 일족이 營州로 옮겨와 있다가 李盡忠의 亂을 틈타 遼水를 건너 東牟山에 근거 하였는데, 이곳은 粟末部の 故地로서 대씨가 거주했던 故地와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었고, 그 주민은 粟末部の 옛 주민이 많았다고 한다.<sup>3)</sup>

해방 이후 북한의 박시형은 먼저 발해가 그 주민, 영역, 주권의 모든 점에서 고구

1) 池內宏, 〈渤海の建國者について〉(《東洋學報》5-1, 1914; 《滿鮮史研究》 中世 第1冊, 吉川弘文館, 1933).

2) 津田左右吉, 〈渤海考〉(《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第1, 東京帝大文科大學, 1915).

3) 金毓黻, 《渤海國志長編》(《渤海國志》 宋遼金元四史資料叢刊 1, 文海出版社, 1977).

려의 후계자이며 문화면에서도 이러한 면이 확인됨을 논증하고,<sup>4)</sup> 1979년에 출간된 《발해사》에서는 발해국 성립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것은 고구려인 집단이었고 그들을 지휘한 것은 이전 고구려 무장의 한 사람인 대조영이었으며, 특히 고구려 사람들이 말갈인과 함께 동맹한 것은 고구려 이래의 오랜 역사적 전통이나 당시의 공통된 처지 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동주 과정 중에 많은 고구려인과 말갈인들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요하 유역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당의 세력이 자취를 감추었다고 주장한다.<sup>5)</sup>

日本の 발해사 연구를 체계화한 鳥山喜一은 대조영은 본래 순수한 高句麗人이 아니고 그 本貫이 白山靺鞨族 출신으로서 그 父祖 때부터 고구려의 영역 안에서 고구려에 오래 服事하여 중국풍의 大氏를 자칭하는 家系에 속했던 자라고 보았다.<sup>6)</sup> 그에 의하면 발해는 이진충의 唐領 침입의 기간을 이용하여 영주를 떠나 동가강 유역을 지나 동북 압록강의 중, 상류 역으로 나와 白山部の 故地인 지금의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구로 이동하여 이곳에서 聖曆 원년(698) 대조영이 振國을 건국하였다고 한다.

新妻利久는 대조영의 營州 이전의 행적에 대하여 걸걸중상과 대조영 부자는 靺鞨族 중에서도 유력한 豪酋로서 그 祖上은 일찍부터 고구려에 복속되어 있었으나 唐과의 싸움에서 항복하여 영주에 옮겨졌다고 주장한다.<sup>7)</sup> 이후 걸걸중상과 걸사비우 등은 말갈인과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영주를 탈출하여 遼水를 건너 小梁水(渾河) 부근의 고향으로 달아나 이곳을 건국의 기지로 삼고, 읍루의 동모산이 있던 敦化縣城 남쪽에 築城하고 振國으로 칭하였다고 보았다.

李龍範은 고구려 桂婁部の 일부가 두만강 유역에서 동가강을 지나 철의 생산지인 遼陽으로 진출하여 토착하였는데, 그 중에서 고구려 멸망 후 遼西로 옮겨진 遺民의 一強酋가 대조영이 라고 하였다.<sup>8)</sup> 한편 걸사비우는 지난날 고구려와 적대관계에 있던 粟末靺鞨 突地稽의 遺衆의 酋長이 아닌가 추정하였다.

石井正敏은 발해가 ‘在高句麗靺鞨人’을 중심으로 고구려가 멸망한 뒤 건설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의 고구려인에 의해 건설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이에 따라 《신당서》와 《구당서》가 혹은 ‘고려의 별종’과 같이, 혹은 ‘본래 속말말갈’과 같이 일견 모순된 표현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점도 위와 같이 생각하면 그 의문은 풀릴 것이라고 한다.<sup>9)</sup>

4) 박시형, 〈발해사 연구를 위하여〉(《역사과학》 1962-1 ; 김정배 편, 《북한의 우리 고대사 인식 (I)-연구성과와 평가》, 대륙연구소, 1991, 재수록).

5) 박시형, 《발해사》(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9).

6) 鳥山喜一, 《渤海史上の諸問題》(風間書房, 1968).

7) 新妻利久, 《渤海國史及び日本との國交史の研究》(東京電氣大學出版局, 1969).

8) 李龍範, 〈渤海王國의 社會構成과 高句麗遺裔〉(《中世東北亞細亞史研究》, 亞細亞文化社, 1976).

9) 石井正敏, 〈朝鮮における渤海觀の變遷-新羅~李朝〉(《朝鮮史研究會論文集》 15, 1978 ; 임상선 편역, 《발해사의 이해》, 신서원, 1990).

劉振華는 〈渤海大氏王室族屬新證〉<sup>10)</sup>에서 《구당서》에 기록된 ‘渤海靺鞨大祚榮者本高麗別種也’의 뜻은 대조영이 고구려국에 일찍이 복속되어 있었으나 그 族은靺鞨에 속하는 것으로 高句麗人과 동일한 민족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盧泰敦은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유민들 가운데 遼東과 唐內地 및 突厥 方面으로 간 집단의 행방을 분석하였는데,<sup>11)</sup> 대조영 집안은 그 移居의 계기가 강제 遷徙였는지, 아니면 流移나 來投였는지 단정키 어려운 바이나, 결사비우와 결결증상이 각각의 集團性이 강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 두 집단은 營州地域에 徙居되어 있을 때부터 집단적으로 唐에 예속된, 곧 일종의 기미주와 같은 양태하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어서 〈渤海 建國의 背景〉<sup>12)</sup>은 고구려 멸망 후 요동지역과 만주지역의 情勢와 力關係를 분석하며 발해의 건국을 구명한 논고로서 이 분야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바이다. 이에 의하면 대조영 집단은 異民族 기풍이 강한 당의 영주지방에 집단적으로 예속되어 자체의 조직과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幽居生活이란 동일한 처지로 인해 자연 이 지역의 말갈족과의 사이에서 화합과 연대의식을 같이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의식을 토대로 하여 이후 696년 東走過程에서 고구려유민이 주동이 되고 말갈족의 일부를 규합한 單一集團이 일종의 힘의 공백상태에 있던 東部滿洲에 진입하여 건국하자 각처에 있던 고구려유민과 말갈족들이 귀속해 들어와 급속히 발전해 갔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渤海國의 住民構成과 渤海人의 族源〉<sup>13)</sup>은 발해국의 중심 족속의 族源을 문헌을 통해 고찰한 내용이다. 발해국의 절대 다수를 점하였던 것은 고구려인계 집단과 말갈족계 집단인데, 먼저 발해국의 주민이 된 高句麗人(A)으로는 ① 營州方面으로부터의 東走集團, ② 고구려국의 서·남부 지역에서 東으로 移住한 이들, ③ 原住地에 머물고 있다가 발해국에 편입된 이들, ④ 9세기 전반에 흡수된 요동의 小高句麗國의 주민이 포함되며, 발해국의 주민이 된 靺鞨族(B)은 ① 영주방면에서 동주한 집단, ② 백돌부·안거골부·호실부 및 속말부의 잔여세력, ③ 흑수부·철리부·월회부·불열부 등 늦게 병합되어진 집단이 속한다고 한다. 그리고 《類聚國史》에 기록되어 있는 이른바 ‘土人’은 고구려계 집단(A)과 영주에서 동주해 온 말갈계 집단 (B-①)으로 구성 되었고, 이 중 중심이 된 집단은 전자이며, 후자가 그에 융합되어 들어가는 형태로 土人 즉 渤海人이 형성되었다고 설명한다.

王成國은 盧泰敦과 달리 《유취국사》의 ‘土人’을 粟末靺鞨이라고 주장한다. 즉 속 말갈말갈을 ‘토인’이라고 한 까닭은 발해가 속신 옛 지역에 나라를 세웠고 속신 옛 지

10) 劉振華, 〈渤海大氏王室族屬新證〉(《社會科學戰線》1981-3 崔茂藏 譯, 《渤海的 起源과 文化》, 藝文出版社, 1988).

11) 盧泰敦, 〈高句麗 遺民史 研究-遼東·唐內地 및 突厥方面의 集團을 중심으로-〉(《韓沽勳博士 停年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1).

12) 盧泰敦, 〈渤海 建國의 背景〉(《大丘史學》 19, 大丘史學會, 1981).

13) 盧泰敦, 〈渤海國의 住民構成과 渤海人의 族源〉(歷史學會,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1985).

역을 후에 읍루 옛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속말말갈을 土人이라고 한 것인데 속말말갈은 말갈 7부 중에서도 소수였고, 또한 ‘그 아래 백성’은 《구당서》에서 말한 고구려유민이라고 한다.<sup>14)</sup>

孫秀仁과 干志耿은 〈論渤海族的形成與歸向〉<sup>15)</sup>에서 말해족은 漢化한 말갈족을 주체로 한 새롭고도 건설한 민족의 공동체인데, 말해 경내에는 구체적인 민족 명칭이 많지만 그것을 귀납하면 대체로 두개의 族系, 즉 肅慎族 계통과 濊貊族 계통으로 나눌 수 있고, 각 민족 계통 내부는 같은 종족이고 대체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河上 洋은 말해 건국의 핵심을 이룬 것은 망명 혹은 唐의 徙民政策으로 영주에 거주하던 고구려인과 말갈인의 연합세력이라 하고, 말갈인 중에서는 속말말갈과 백산부를 그 대상으로 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속말말갈은 그 중의 한 部가 말해 건국에 관계하였고, 백산부는 말해가 건국시의 근거지로 삼은 돈화부근이 본래 백산부의 거주지로 생각되므로 이들도 말해 건국에 일익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았다.<sup>16)</sup>

王承禮는 고구려가 멸망한 뒤 고구려에 臣屬하고 있던 백산말갈과 일시 고구려의 통치를 받았던 속말말갈의 일부가 영주로 옮겨와 살았는데 이들과 고구려유민이 대조영의 지휘아래 이진충의 난을 틈타 동쪽으로 진군하여 현재의 목단강 상류의 敦化와 寧安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하였다.<sup>17)</sup>

일본의 古畑 徹은 〈渤海建國關係記事の再檢討中國側史料の基礎的研究〉라는 논문에서 말해 관련 기본 사료라 할 수 있는 《구당서》, 《신당서》, 《오대회요》를 세밀히 검토하고, 말해 건국에 대해서는 《구당서》와 《오대회요》가 《신당서》에 비해 사료적 가치가 우월함을 지적하였다.<sup>18)</sup> 이와 함께 건국집단의 편성은 《구당서》와 《오대회요》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대씨집단(고구려인)과 걸사비우집단(말갈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비해 《신당서》는 앞의 두 집단 이외에 ‘高麗餘種’이 첨가되어 합리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方學鳳은 건국 초기에 대조영은 속말말갈부를 중심으로 하여 백산말갈부, 백돌말갈부, 안거골말갈부 등을 통합하여 말해에 귀속시켰다고 하였다.<sup>19)</sup> 그리고 대조영이 698년 振國을 세우고 근거지로 삼은 東牟山은 오늘의 돈화시 城山子山城이며, 이른바 舊國은 건국 이후 경제가 발전하고 국력이 강대해지자 옮겨간 평원성인 敖東城을 합하여 부른 지역 명칭이라고 한다.<sup>20)</sup>

14) 王成國, 〈試論唐代渤海國的族屬問題〉(《沈陽師範學院學報》1982-1 ; 김정배·유재신 편, 《말해국사》 1, 정음사, 1988).  
15) 孫秀仁·干志耿, 〈論渤海族的形成與歸向〉(《學習與探索》1982-4 ; 김정배·유재신 편, 위의 책).  
16) 河上 洋, 〈渤海の地方統治體制一つの試論として〉(《東洋史研究》 42-2, 1983 ; 임상선 편역, 앞의 책).  
17) 王承禮, 《渤海簡史》(黑龍江人民出版社, 1984 ; 宋基豪 역, 《말해의 역사》, 한림대출판부, 1987).  
18) 古畑 徹, 〈渤海建國關係記事の再檢討-中國側史料の基礎的研究-〉(《朝鮮學報》 113, 朝鮮學會, 1984).  
19) 方學鳳, 《중국동북민족관계사》(대륙연구소, 1991).

宋基豪의 〈大祚榮의 出自와 발해의 건국과정〉은 발해의 건국과정에 대하여 전적으로 다룬 최근의 논고로서 종래의 연구와는 다른 견해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sup>21)</sup> 먼저 대조영 집단은 원래 순수 말갈족으로서 고구려에 들어와 걸걸중상에서 대조영으로 내려오면서 동화과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대조영은 靺鞨系 高句麗人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대조영은 고구려가 멸망한 뒤 영주지역으로 다시 옮겨져, 이진중의 난을 계기로 東走하였는데, 발해는 종래 알려진 것과 같이 처음에 東牟山에 건국된 것이 아니고 698년 遼東地方의 梁水地域에 건국되었으나 李楷固의 공격으로 700년 이후 東牟山으로 이동하여 재건되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걸걸중상과 걸사비우는 각기 고구려유민과 말갈인을 이끌고 遼東으로 건너와 독립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급기야는 각각 나라를 세워 王이 되었으나 이해고의 공격으로 먼저 걸사비우집단이 파멸됨으로써, 이들 걸사비우의 무리를 대조영이 규합하여 이해고의 공격을 물리치고, 동모산으로 자리를 옮겨 정착하게 되었으며, 또한 발해의 건국집단들은 동모산에 정착한 뒤 모두 支配層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지배계층의 이름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大氏는 비록 혈통으로는 말갈계이나 이미 고구려화가 진전되었던 대조영 집단의 후예 들이고, 高氏는 고구려 계통으로서 영주에서 부터 대조영 집단과 함께 행동하였거나 아니면 요동지방으로부터 이들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의 후예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대조영이 동모산에 정착하여 세력이 크게 확장되었을 때의 세력규모가 40여 만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장국중은 발해 존속 기간 중에 발해 주민은 고구려 유민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기본을 이루었고, 말갈족은 그에 비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적었다고 하였다.<sup>22)</sup> 또한 최근에 발표한 글에서는 崔致遠의 〈謝不許北國居上表〉에서 그가 발해의 源流라고 한 것은 발해가 계승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발해의 건국자인 대조영이 동쪽 동모산으로 향하여 출발한 곳, 즉 영주를 밝힌 것인데, 일부 후세 史家들이 대조영 등 고구려인들도 살고 있던 영주에 속말말갈이 옮겨가서 살고 있었다고 하여 영주의 속말말갈을 발해의 원류로 보는 부당한 억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3)</sup>

韓圭哲은 《구당서》의 ‘高麗別種’은 대조영이 고구려계임을, 《신당서》의 ‘粟末靺鞨附高麗者’의 기록은 대조영의 출신지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은 대조영이 ‘고구려의 松花江 출신’임을 의미하며, 발해왕이 스스로 ‘高句麗國王’이라 자처한 것은 속말말갈과 백산말갈인 이 고구려 주민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한다.<sup>24)</sup> 또한 대조영(걸걸중상)과 말갈 걸사비우, 그리고 高麗餘種이 함께 행동하다가

20) 방학봉, 〈발해 초기의 수도에 대한 몇가지 문제〉(《발해문화연구》, 도서출판 이론과 실천, 1991).

21) 宋基豪, 〈大祚榮의 出自와 발해의 건국과정〉(《아시아문화》 7, 한림대 아시아文化研究所, 1991).

22) 장국중, 〈발해본토의 주민구성〉(《역사과학》 1991-2).

\_\_\_\_\_, 〈발해본토인 말갈인의 분포상태〉(《역사과학》 1991-4).

23) 장국중, 〈발해존립당시의 사료를 통하여 본 고구려와 발해의 계승관계〉(中國延邊大學 第2回 渤海史學術討論會 發表論文, 1992년 7월).

振國을 건설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장창희는 《신당서》와 《구당서》를 비교한 뒤 대조영이 동주하여 처음 자리잡은 곳은 雄據 한 곳과 지키는 곳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 두 곳을 합친 곳이 발해국 최초의 지역이라고 하였다.<sup>25)</sup> 그리하여 발해국 최초의 지역은 일찍이 고구려에 복속되어 있다가 고구려 멸망과 함께 唐으로 대부분 끌려간 백산말갈의 옛 고장이었던 대체로 목단강 상류지방과 해란강, 부루하통하 유역 즉 지금의 연변자치주경내이며, 이 황폐한 곳에 다시 모여든 사람이 곧 대조영이 인솔한 ‘兵丁戶口四十餘萬’이 아닐까 추정하였다.

孫進己는 《東北民族源流》에서 발해 민족이 7세기 말엽에 3개의 집단, 즉 첫째, 《구당서》의 대조영과 《신당서》의 걸걸중상(대조영의 父)이 거느린 집단, 둘째, 말갈추장 걸사비우가 거느린 말갈의 잔여인, 셋째, 고구려유민의 무리로 구성되었다고 하고,<sup>26)</sup> 이 가운데 발해족의 주된 원류는 濊貊系이며, 그 중에서도 역할이 컸던 것은 粟末靺鞨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발해의 건국과정에 대해서 대체적인 윤곽에 있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혼란스러운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다.

먼저 기존의 연구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高麗別種인 大祚榮集團과 靺鞨族인 乞四比羽集團이 696년 5월 거란인 李盡忠의 반란을 계기로 그때까지 거주하고 있던 營州를 탈주하면서 발해 건국의 서막이 열린다. 이 들은 각기 독립된 집단을 이끌면서 동쪽으로 달아나 遼河를 건너 遼東地方에 일시 정착하나 곧이어 唐의 토벌군인 李楷固軍의 공격으로 걸사비우가 죽음을 당하고, 대조영의 父인 乞乞仲象도 病死하는 사태에 직면하여 대조영이 이들 두 집단의 통합세력의 지도자로 등장하여 天門嶺에서 계속된 이해고군의 추격을 물리쳤다. 契丹·奚 등의 突厥귀속으로 당의 토벌이 불가능해지자 대조영은 무리를 이끌고 다시 동쪽으로 이동하여 東牟山, 즉 오늘날 길림성 돈화시 부근의 城山子山城을 근거로 건국한다. 이후 요동지방과 동부만주지역에서 고구려유민과 말갈인들이 합세하면서 세력이 확장된다는 것이 발해 건국에 대한 종래의 일반적 이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는 문제 가운데는 이해고의 토벌 시기, 건국지의 위치, 천문령의 위치, 건국집단으로서의 고구려유민집단과 말갈집단의 구성 등이 주요한 해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해고의 토벌 시기에 대해서는 《신당서》 발해전과 《신당

24) 韓圭哲, 〈渤海의 對外關係 研究-新羅와의 關係를 中心으로-〉(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1991).  
——, 〈渤海建國과 南北國의 形成〉(《韓國古代史研究》 5, 지식산업사, 1992).  
25) 장창희, 〈발해국 최초의 지역에 대한 문헌적 고찰〉(《발해사연구》 제 2집, 연변대학출판사, 1991).  
26) 孫進己 저·林東錫 역, 《東北民族源流》(東文選, 1992).

서》 거란전, 《구당서》 적인걸전에 보이는 久視 원년(700)의 이해고의 契丹餘黨' 토벌이 동일 사건인지 아니면 별개의 사건인지 견해가 나누어져 있고, 건국지의 위치로는 돈화 성산자산성이 동모산이라는 일반적 견해와 달리 이해고의 토벌을 받은 지역을 遼東으로 보면서 이곳을 건국지로 간주하는 견해가 있고, 아울러 동주집단이 천문령전투 전에 遼河를 건너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현재 건국지를 돈화부근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찾는 경우에도 東牟山을 돈화부근으로 비정하는 데는 이론이 없다. 또한 동주집단에 최대의 추격세력이었던 唐의 토벌군을 격퇴하며 발해 건국에 일대 전기가 된 전투가 벌어진 天門嶺의 비정에서는 오늘날 渾河와 輝發河의 分水嶺으로 보는 견해와 함께 遼東지역이 아닌 遼西지역으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다.

건국집단의 설명에서는 영주에서 동주한 걸걸중상집단과 걸사비우집단의 발해 건국에서의 주동적인 역할과 동주 도중, 혹은 발해 건국 후 주변지역에서 다시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들이 합세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거의 이론이 없다. 그러나 이들 각 집단의 계통과 구성에 대해서는 각인각색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합일된 결론이 도출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먼저 걸걸중상집단의 설명으로는 高句麗系, 粟末靺鞨系, 혹은 白山靺鞨系의 3개의 說이 제기되고, 걸사비우집단은 靺鞨族임에는 분명하나 속말말갈인지 백산말갈인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걸걸중상집단과 걸사비우집단을 種族的으로 상이한 계통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걸걸중상의 계통이 속말말갈인 경우는 걸사비우는 백산말갈이며, 걸걸중상이 백산말갈이면 걸사비우는 속말말갈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걸걸중상집단의 경우는 걸걸중상보다는 그 아들인 대조영의 出自에 관심이 집중되어 그를 純高句麗人으로 간주하는 한편으로 《구당서》의 '高麗別種'과 《신당서》의 '本粟末靺鞨附高麗者'의 기록을 상호 보완적으로 해석하여 혈통적으로는 속말말갈족이나 고구려 멸망 전에 고구려에 귀속되어 高句麗化가 진전된 인물로 설정하기도 한다.

결국 발해사에 있어서 건국과 관련된 이해는 종래 선학제현들의 노력에 힘입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상의 복원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도 적지 않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Ⅲ. 建國 關聯 史料의 再檢討

본장에서는 발해의 건국과정에 참여한 세력을 구명하기에 앞서 발해 건국에 관한 기본사료라고 할 수 있는 《舊唐書》, 《五代會要》, 《新唐書》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건국과정의 시간적 순서, 통과한 지역,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참여한 집단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점검하여 보기로 한다.



### 1. 건국 관련 사료의 내용

발해의 건국을 전하고 있는 《구당서》와 《오대회요》, 《신당서》의 기록은 대체적인 의미에서는 일치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일부 서로 상충되는 점도 있다. 그러면 이들 사료가 전하는 내용을 각기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사료 : 가)

- ① 渤海靺鞨大祚榮者 本高麗別種也.
- ② 高麗既滅 祚榮率家屬徙居營州.
- ③ 萬歲通天年 契丹李盡忠反叛 祚榮與靺鞨乞四比羽各領亡命東奔 保阻以自固.
- ④ 盡忠既死 則天命右玉鈴衛大將軍李楷固率兵討其餘黨 先破斬乞四比羽 又度天門嶺以迫祚榮.
- ⑤ 祚榮合高麗靺鞨之衆以拒楷固 王師大敗 楷固脫身而還.
- ⑥ 屬契丹及奚盡降突厥 道路阻絕 則天不能討 祚榮遂率其衆東保桂婁之故地 據東牟山 築城以居之.
- ⑦ 祚榮驍勇善用兵 靺鞨之衆及高麗餘燼 稍稍歸之.
- ⑧ 聖曆中 自立爲振國王 遣使通于突厥. (《舊唐書》 권199하, 渤海靺鞨傳)

《舊唐書》27)가 전하는 건국과정을 관련지역과 집단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渤海靺鞨 大祚榮은 高麗別種이다.

둘째, 고구려가 멸망하자 대조영은 家屬을 이끌고 營州로 옮겨와 살았다.

셋째, 萬歲通天 연간에 李盡忠의 반란을 틈타 대조영은 靺鞨 乞四比羽와 함께 각각(그들의 무리들) 거느리고 동쪽으로 망명, 要害地를 차지하여 수비를 굳혔다.

넷째, 이진충이 죽고 則天이 李楷固에게 그 餘黨을 토벌케 하니, (이해고는) 먼저 걸사비우를 무찔러 베고, 또 天門嶺을 넘어 대조영을 바짝 뒤쫓았다.

다섯째, 대조영이 고려·말갈의 무리(高麗靺鞨之衆)를 합하여 이해고를 크게 격퇴하니, 이해고만 겨우 탈출하여 돌아왔다.

여섯째, (이때) 마침 契丹과 奚가 突厥에 귀속함으로써 측천의 토벌이 불가능해지자, 대조영은 마침내 그 무리를 거느리고 동으로 가서 桂婁의 옛땅(桂婁之故地)을 차지하고, 東牟山에 웅거하여 城을 쌓고 살았다.

일곱째, 대조영이 굳세고 용맹스러우며 用兵을 잘하자, 말갈의 무리 및 고려여신

27) 《구당서》는 941년에서 945년 사이에 당시 남아 있던 唐朝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편찬된 것이며, 《오대회요》와 함께 발해 건국에 관한 내용은 《신당서》보다 중시되고 있다(古畑 徹, 앞의 논문 p. 40).

(靺鞨之衆及高麗餘燼)이 점점 모여 들었다.

여덟째, 聖曆 연간(698~700)에 스스로 振國王에 올라 돌궐에 사신을 보내어 통고하였다.

위의 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구당서》는 발해 건국과정에서 대조영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高麗別種이라는 대조영이 최종적으로 聖曆 연간에 자립하여 振國王으로 즉위하기까지 많은 세력의 연합 및 합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당서》의 서술에서는 대조영이 이진충의 반란을 계기로 동주할 당시에 그의 무리(셋째 단계)는 고구려 멸망 후 營州로 이주될 당시의 그의 家屬(둘째 단계) 만인가, 天門嶺 동쪽에서 李楷固의 토벌군을 맞이할 때에 고려·말갈의 무리의 연합군(다섯 단계)은 어떠한 집단인가, 그리고 桂婁故地로 이동할 때의 대조영 무리(여섯 단계)와 일곱째 단계에 합류한 말갈의 무리와 高麗餘燼의 실체는 무엇인가 등이 구명되어야 할 문제로 제기된다.

또한 대조영과 걸사비우가 영주에서 동쪽의 요해지로 이동하여 自固한 곳은 어디이며, 대조영이 이해고의 토벌군을 맞이할 때의 천문령 동쪽은 어디인지, 이해고를 격퇴한 후 옮겨간 계루의 고지, 東牟山은 어디인가 등도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사료 : 나)

- ① 渤海靺鞨 本高麗種.
- ② 唐總章中 高宗平高麗 徙其人 散居中國 置州縣于遼外 就平壤城 置安東都護府 以統之.
- ③ 至萬歲通天中 契丹李萬榮反 攻陷營府 有高麗別種大舍利乞乞仲象 大姓 舍利官 乞乞仲象名也 與靺鞨反人乞四比羽走保遼東 分王高麗故地.
- ④ 則天封乞四比羽許國公 大舍利乞乞仲象震國公 乞四比羽不受命 則天命將軍李楷固 臨陳斬之.
- ⑤ 時乞乞仲象已死 其子大祚榮繼立 併有比羽之衆 勝兵丁戶四十餘萬.
- ⑥ 保據挹婁故地 至聖曆中稱臣朝貢. (欽定四庫全書本 《五代會要》 권30, 渤海傳)

《五代會要》<sup>28)</sup>의 기록을 《구당서》와 마찬가지로 건국 관련 집단과 지역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渤海靺鞨은 본래 高麗種이다.

둘째, 唐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 사람들을 中國에 散居시키고, 遼外에는 州縣을 설치하고, 平壤城에는 安東都護府를 두어 다스렸다.

28) 《오대회요》는 961년을 전후한 시기에 宋의 王溥가 편찬하였으며, 渤海傳의 기사는 張建章의 《渤海國記》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다(古畑 徹, 앞의 논문 p. 23).

셋째, 萬歲通天 중에 李萬榮<sup>29)</sup>의 반란을 계기로 高麗別種인 大舍利 乞乞仲象이 靺鞨反人 乞四比羽와 遼東으로 달아나 高麗故地에서 分王하였다.

넷째, 則天의 冊封을 받아들이지 않은 結沙比우는 李楷固의 토벌군에 죽음을 당한다.

다섯째, 이 때 大祚榮이 사망한 그 아버지 結結중상을 이어 서서 結沙比우의 무리(比羽之衆)를 아우르니 勝兵丁戶가 40여 만이다.

여섯째, 읍루고지를 차지하고, 聖歷 중에 稱臣朝貢하였다.

《오대회요》의 기록에는 《구당서》에 비해 내용상의 축약과 함께 새로운 내용도 눈에 띈다. 먼저 結結중상과 結沙比우가 영주에서 달아나 分王한 遼東과 高麗故地의 위치와 마지막으로 정착한 挹婁故地가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참여세력으로서는 李盡忠의 반란을 계기로 요동으로 달아날 시기에 結結중상과 結沙比우가 거느린 집단의 실체와 함께 대조영이 結沙比우의 죽음 뒤 아우른 무리 등이 해명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오대회요》의 기록에서는 聖歷 전에 요동의 고구려 옛 땅에서 結沙比우와 함께 結結중상이 즉위하고, 대조영은 結結중상의 아들로서 2대가 됨을 전하고 있다. 아울러 요동의 건국지에서 이해고의 토벌군을 격퇴하고 結沙比우의 잔당을 아우른 뒤 읍루의 고지로 이동한 듯이 서술되어 있다.

(사료 : 다)

- ① 渤海 本粟末靺鞨附高麗者 姓大氏.
- ② 高麗滅 率衆保挹婁之東牟山 地直營州東二千里 南比新羅 以泥河爲境 東窮海 西契丹 築城郭以居 高麗遺殘稍歸之.
- ③ 萬歲通天中 契丹盡忠殺營州都督趙翹反 有舍利乞乞仲象者 與靺鞨酋乞四比羽及高麗餘種東走 度遼水 保太白山之東北 阻奧婁河 樹壁自固.
- ④ 武后封乞四比羽爲許國公 乞乞仲象爲震國公 赦其罪 比羽不受命 后詔玉鈴衛大將軍李楷固中郎將索 仇擊斬之.
- ⑤ 是時仲象已死 其子祚榮引殘夷遁去.
- ⑥ 楷固窮躡 度天門嶺 祚榮因高麗靺鞨兵拒楷固 楷固敗還.
- ⑦ 於是契丹附突厥 王師道絕 不克討 祚榮卽并比羽之衆 恃荒遠 乃建國 自號震國王 遣使交突厥. (《新唐書》 권219, 渤海傳).

《新唐書》<sup>30)</sup>의 기록은 종래 알려진 바와 같이 시간상, 내용상 《구당서》나 《오

29) ‘李萬榮’은 반란의 주동자인 李盡忠과 孫萬榮의 合稱이거나, 양자의 혼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古畑 徹, 앞의 논문 p. 46의 주 18 참조).

30) 《신당서》는 1044년에서 1060년 사이에 歐陽修와 宋祁에 의하여 편찬되었으나, 이 가운데 列傳은 후자의 저작이다. 《신당서》 발해전의 기사는 《渤海國記》를 축으로 하고 여기에 없는 부분을 사료 계통이 다른 《구당서》에서 보충함으로써 모순된 내용이 많게 되었다고

대회요》에 비해 혼동된 부분이 적지 않다.

첫째, 渤海는 본래 粟末靺鞨로서 고구려에 附屬되어 있었으며, 姓은 大氏이다.

둘째, 고구려가 멸망하자, 무리를 이끌고 營州 동쪽 2천리 떨어진 읍루의 東牟山을 차지하고, 성곽을 쌓고 사니, 高麗遺殘이 점점 모여 들었다.

셋째, 만세통천 연간에 (이)진충의 반란이 일어나자, 舍利 結絳중상이 말갈의 추장 結沙比우 및 高麗餘種과 동쪽으로 달아나, 遼水를 건너서 太白山의 동북을 거점으로 輿婁河에 의거하여 성벽을 쌓고 수비를 굳혔다.

넷째, 武后의 책봉을 結沙比우가 받아들이지 않자, 무후는 李楷固와 索仇로 하여금 그를 쳐서 죽였다.

다섯째, 이 때 結絳중상은 이미 죽고 그의 아들 大造영이 殘廢를 이끌고 도망쳐 달아났다.

여섯째, 이해고가 天門嶺을 넘어 끝까지 추격하자, 大造영이 고려·말갈병(高麗靺鞨兵)으로서 이해고를 패퇴시켰다.

일곱째, 이에 거란이 돌궐에 붙어 당의 토벌이 어려워지자, 大造영은 곧 結沙比우의 무리를 합병(併比羽之衆)하고, 나라를 세워 스스로 震國王이라 부르며, 돌궐과 통교하였다.

위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듯이 《신당서》의 기록은 전후관계가 혼재되어 있다. 즉 첫째~둘째 단계는 발해의 건국과정을 총괄적으로 기술한 것이고, 그 이하가 이 내용을 설명한 부분이나 전후의 문맥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結絳중상과 結沙比우가 營州에서 달아난 지역이 太白山 동북의 輿婁河인데, 結沙比우를 죽인 뒤 계속된 이해고의 토벌군이 天門嶺을 넘었다고 하여 靺鞨가 태백산 동북, 高麗의 동쪽에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또한 靺鞨가 천문령 전투 후 근거지 이동없이 건국하였다면 둘째 단계에서 말한 읍루의 동모산이 태백산 동북, 高麗에서 다시 靺鞨를 넘어 존재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영주 鴨洲의 高麗餘種의 존재, 大造영과 이해고의 전투여부, 靺鞨가 천문령 전투 시 大造영이 거느린 靺鞨兵과 이후에 병합한 比羽之衆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

## 2. 건국과정의 概要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발해 건국에 대한 기본 사료라는 《구당서》, 《신당서》, 《오대회요》의 기사에는 상호간에 異同이 있어 종래부터 이 부분의 해석을 둘러싸고 연구자 간에 적지 않은 견해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구당서》의 기사는 唐朝側

---

한다(古畑 徹, 앞의 논문 p. 40).

의 사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고, 《오대회요》와 《신당서》의 건국관계 기사는 모두 9세기 전반 발해에 사신으로 갔다온 張建章이 저술한 《渤海國記》기사의 요약이나, 《신당서》의 건국기사만은 사료계통이 다른 사료를 무비관적으로 결합하여 모순된 내용을 담게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1)</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구당서》의 기록을 저본으로 하여 《오대회요》와 《신당서》의 서술을 비교 검토하고, 그 결과 건국과정을 시간적 천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려고 한다.

첫째, 고구려 멸망 후 高麗別種인 乞乞仲象(혹은 大祚榮)<sup>32)</sup>과 그 家屬이 營州로 사거되어 거주한다. 《오대회요》는 “唐總章中 高宗平高麗 徙其人 散居中國”(나-②)이라 하여 唐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 사람들을 중국에 산거시켰다고 하였으나, 이 기록은 《구당서》의 기록과 전후 문맥으로 미루어 대조영의 영주 徙居를 기록한 것이 분명하다. 한편 《신당서》에서는 해당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sup>33)</sup>

둘째, 영주에서 萬歲通天 중 거란인 李盡忠의 反亂<sup>34)</sup>을 틈타 고려별종 대조영 혹은 걸걸중상의 무리와 말갈 걸사비우 무리, 高麗餘種이 696년<sup>35)</sup> 동주한다. 동주집단의 설명에서 3書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구당서》에서는 고려별종 대조영과 말갈 걸사비우, 《오대회요》에서는 고려별종 대사리 걸걸중상과 靺鞨反人 걸사비우, 그리고 《신당서》에서는 舍利 걸걸중상과 靺鞨酋 걸사비우 및 高麗餘種이 동주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동주집단 가운데 《신당서》의 高麗餘種에 대해서는 그 존재에 회의적인 주장이 있으나,<sup>36)</sup> 이 경우 대조영이 천문령 동쪽에서 이해고를 격퇴할 때 병합한 ‘高麗靺鞨之衆’(가-⑤)과 ‘高麗靺鞨兵’(다-⑥)의 해석에 난점이 따른다.

셋째, 이들 집단이 동주하여<sup>37)</sup> 1차로 정착하는 곳은 遼水를 건넌 遼東地域으로서

31) 古畑 徹, 앞의 논문 참조.

32) 본고에서는 대조영과 걸걸중상의 관계에 대한 同一人說, 別個人說, 父子說 등 다양한 견해 중에 걸걸중상은 영주 탈주 후 천문령 전투 전에 사망하기까지 고려별종 집단을 인솔하였고, 이후 대조영이 그 지위를 계승했다는 父子說에 따르기로 한다.

33) 《신당서》(다-②)에서는 고구려 멸망 뒤 읍루의 동모산으로 이동한 듯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곳은 뒤에 언급하듯이 발해 최후의 정착지로서 건국지이다.

34) 李盡忠의 亂의 발발은 萬歲通天 원년(696) 5월이고, 이진충이 죽은 것은 같은 해 9월이며, 孫萬榮의 죽음은 697년 6월, 그 잔당을 완전히 평정하고 神功으로 개원한 것이 9월이다. 그리고 이진충의 別將이던 李楷固와 駱務整이 唐에 항복한 것은 손만영이 죽기 직전 거란군이 大敗한 때이다(宋基豪, 앞의 논문 p. 196).

35) 《구당서》에서는 이들 집단의 동주기사에 이 어 ‘盡忠既死’라고 있어, 이진충의 죽음 이전에 동주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확한 동주시기는 亂이 발발한 696년 5월에서 이진충이 사망한 같은 해 9월 사이가 될 것이다. 이와 달리 宋基豪은 697년 전반 이후로 추정하고 있다(宋基豪, 앞의 논문 p. 200).

36) 古畑 徹(앞의 논문 p. 31, pp. 35~36)과 宋基豪(앞의 논문 p. 209)의 부인과 달리, 盧泰敦(〈渤海國의 住民構成과 渤海人の 族源〉 p. 266)과 韓圭哲(〈渤海建國과 南北國의 形成〉 pp. 166~167)은 필자와 마찬가지로 高麗餘種이 발해 건국에 참여한 고구려 유민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한다.

37) 이들의 이동로는 후에 영주와 발해간의 교통로였던 ‘營州道’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新唐書》 권43下, 地理 7下에는 “營州東百八十里至燕郡城 又經汝羅守捉 渡遼水 至安東

옛 고구려 땅이다. 《신당서》에서는, “度遼水 保太白山之東北 阻奧婁河 樹壁自固”(다-③)라 하여 요수를 건너 도달한 지역을 태백산 동북, 오루하라 하였으나, 이곳은 바로 앞의 사료 다-②에 기록된 ‘음루의 동모산’으로서 최종 정착지이다. 《구당서》에서는 “保阻以自固”(가-③)라고 할 뿐 구체적인 地名을 적시하고 있지 않다. 한편 《오대회요》에 나오는 “分王高麗故地”(나-③)의 ‘분왕’을 建國으로 해석하는 주장이 있으나,<sup>38)</sup> 이 기록은 《오대회요》의 문장을 잘 검토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즉 ‘분왕’은 걸사비우와 걸걸중상이 이 곳으로 동주하여 걸사비우가 許國公, 걸걸중상이 震國公에 책봉된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분왕’이 건국이 아니라는 또 다른 이유는 《구당서》에 제시된 건국 연도인 ‘聖曆中’이 《오대회요》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至聖曆中稱臣朝貢”(나-⑥)에는 건국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때(698년) 발해가 건국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오대회요》의 기록대로 걸걸중상과 걸사비우가 동주하여 요동의 高麗故地에 건국하였다면 698년 이전에 渤海가 건국된 것으로 되어 무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이진충이 죽은 뒤<sup>39)</sup> 唐이 걸사비우를 허국공에 걸걸중상을 진국공에 책봉하며 그 죄를 용서하나(다-④), 걸사비우가 이것을 거절하자,<sup>40)</sup> 則天의 명을 받은 李楷固는 이들과의 싸움에서 먼저 걸사비우를 참한다.<sup>41)</sup> 여기서 이해고의 토벌 시기에 대해서는 종래 발해 건국 이전설과 700년설로 양분되어 있었으나, 건국과정의 전후 사정으로 판단하건대 전자가 사실에 가까운 견해로 생각된다.<sup>42)</sup> 왜냐하면 渤海傳의 이해고 출정은 발해 건국 이전이나, 契丹傳이나 狄仁傑傳의 기사는 久視元年(聖曆 3년, 700)으로 기록되어 있고, 《구당서》 발해전에 “王師大敗 楷固脫身而還”(가-⑤)이라 하여 이해고가 겨우 몸만 빠져 돌아갈 정도의 대패를 당한 반면에 《구당서》 적인걸전에는 契丹餘衆을 토벌하고 사로잡아 온 포로를 바칠 정도의 대공을 세웠다<sup>43)</sup>는 등 완전히 별개의 사건처럼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걸사비우의 죽음에 이어, 걸걸중상을 대신<sup>44)</sup>한 대조영 자신도 이해고와의 싸움에서 패하자<sup>45)</sup> 殘夷를 이끌고 天門嶺<sup>46)</sup>동쪽으로 달아난다.

---

都護府五百里……自都護府東北經古蓋牟新城 又經渤海長嶺府 千五百里至渤海王城 城臨忽汗海”라고 하여 당시의 路程을 기록하고 있다.

38) 宋基豪, 앞의 논문 p. 203. 古畑 徹, 앞의 논문 p. 8,37.

39) 이진충은 696년 9월 庚申에 죽고, 손만영이 다음 해 6월에 사망하기까지 반란군을 이끈다.

40) 《구당서》에서는 대조영과 걸사비우가 이진충의 ‘餘黨, 이기 때문에 則天이 토벌을 명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가-④).

41) 이해고와 동주집단과의 전투 시기는 이해고의 唐軍 투항이 697년 6월이고 발해의 건국이 698년인 점으로 미루어 대략 697년 후반일 것으로 추정된다.

42) 종래의 견해에 대해서는 宋基豪, 앞의 논문 pp. 197~199 참조.

43) “(聖曆 3年 6月)左玉鈐衛大將軍李楷固·右武威衛將軍駱務整討契丹餘衆 擒之 獻俘於含樞殿 則天大悅 特賜楷固姓武氏”(《舊唐書》 권89, 狄仁傑傳).

44) 《高麗圖經》 제1권, 建國 始封條에는 “武后遣將擊殺其主乞昆羽 而立其主乞仲象 亦病死 仲象子祚榮立”이라 하여 걸걸중상이 병으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섯째, 이해고가 친문령을 넘어 계속 공격해 오자, 대조영은 이 2차 전투에서 高麗餘種과 말갈 걸사비우의 남은 무리를 병합하여 이해고를 격퇴시킨다. 《오대회요》에는 이해 와 대조영의 친문령전투에 대한 언급이 없이 걸걸중상을 이어서 대조영이 걸사비우의 무리를 병합한 사실(나-⑤)만이 등장한다. 한편 《신당서》에는 걸사비우의 무리가 친문령 전투 이후에 대조영에게 병합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나(다-⑦), 이것은 앞뒤의 문장을 검토해 보면 (다-⑥)의 ‘靺鞨兵’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이때 契丹과 奚의 突厥 귀속으로 길이 막혀 唐의 토벌이 불가능해지자 대조영은 그 무리를 이끌고 다시 동쪽으로 이동하여 태백산의 동북 읍루의 옛 땅을 차지, 東牟山에 築城하고 이곳에 거주한다. 《신당서》의 “保太白山之東北 阻奧婁河”(다-③)라는 기록도 동모산의 위치를 설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구당서》의 “桂婁之故地”(가-⑥)는 대조영이 건국의 기틀을 마련한 중심지대, 다시 말하면 東牟山과 敦東城을 포함한 발해 초기의 중심지역을 의미하며, 이곳은 또한 읍루의 옛 지역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현된 것이다.<sup>47)</sup> 《오대회요》에는 동모산에 대한 언급이 없다(나-⑥).

여덟째, 이후 대조영이 용맹스럽고 用兵을 잘하자 말갈의 무리와 高麗餘燼이 점점 귀속해 온다. 《신당서》의 “高麗遺殘”(다-②)은 高麗餘燼과 같은 집단이며, 《오대회요》에는 해당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표 1> 발해의 건국과정

기 간	관련인물 및 집단	관련지역	비 고
高句麗滅亡 後	高麗別種 乞乞仲象 (大祚榮)과 그 家屬	高句麗→營州 이동	
萬歲通天 中	高麗別種 乞乞仲象과 그 무리	영주→遼水→遼東, 高麗故地	이진중 반란(696.5) 계기, 각각 동주 (696.5~9)(1차 정착 지)
	靺鞨乞乞四比羽와 그 무리	위와 같은 지역	
	高麗餘種	위와 같은 지역	
李盡忠의 死後	걸사비우	天門嶺 서쪽 (요동, 고려고지)	冊封, 李楷固 공격→ 걸사비우죽음
	걸걸중상→大祚榮	친문령 서쪽 (요동, 고려고지)	冊封 걸걸중상 死亡 →대조영 繼立, 이해

45) 대조영이 이해고와의 싸움에서 패하였음은 “其子祚榮引殘夷遁去”(다-⑤)라는 기록으로 짐작할 수 있다.  
 46) 친문령의 위치에 대한 종래의 견해는 크게 보아 遼河 以西說과 遼河 以東說로 구분되나, 후자의 주장 중에 대체로 오늘날 輝發河와 渾河의 分水嶺으로 비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宋基豪, 앞의 논문 pp. 205~206).  
 47) 新妻利久, 앞의 책 pp. 21~22와 方學鳳, <발해 초기의 수도에 대한 몇가지 문제> p. 175 참조. 이와 함께 古畑 徹은 ‘桂婁’는 唐朝側의 認識이고, ‘挹婁’는 《渤海國記》에 전하는 太和 年間경의 발해측의 인식으로서, 그 正否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한다(古畑 徹, 앞의 논문 p. 43).

乞乞仲象의 죽음 후	대조영과 그 殘疾	천문령 서쪽→동쪽으로 이동	고에 패배(1차 전투) 2차 정착지
天門嶺 동쪽 이동 후	대조영과 高麗餘種·比羽무리連合 (高麗靺鞨之衆, 高麗靺鞨兵)	천문령 동쪽	이해고격퇴(2차 전투)
契丹, 奚의 突厥 歸屬 後	대조영과 그 무리	천문령 동쪽→태백산 동북, 읍루고지, 東牟山으로 이동	桂婁故地 奧婁河 (3차 정착지)
東牟山에 築城後	靺鞨之衆과 高麗餘燼(高麗遺殘)	위와 같은 지역	대조영에게 귀속해옴
聖曆 중	대조영	위와 같은 지역	振國王 즉위(698), 突厥과 통교

아홉째, 대조영은 聖曆 중인 698년<sup>48)</sup>에 건국하여 振國王으로 칭하고 돌궐과 통교한다. 《오대회요》에서는 “至聖曆中稱臣朝貢”(나-⑥)이라 기록하여 발해가 稱臣朝貢한 대상이 唐人 것 같이 언급되어 있으나, 당시의 주변 정세나 《구당서》와 《신당서》의 내용으로 미루어 돌궐로 이해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또한 《신당서》에서는 震國王으로 표기하고 일시를 적시하고 있지 않다.

위의 내용을 발해 건국에 참여한 집단과 그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표로 정리한 것이 앞의 <표 1> 이다.

결국 발해의 건국과정은 앞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집단이 포함된 일련의 역사적 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사료에 등장하는 집단은 고-구려계와 말갈계로 대별할 수가 있다. 高句麗系統은 高麗別種인 大祚榮(혹은 乞乞仲象)과 그 家屬, 高麗之衆, 高麗兵, 高麗餘燼, 高麗遺殘, 그리고 高麗餘種 등으로 표현되고, 靺鞨系統은 靺鞨酋 乞四比羽와 靺鞨之衆, 靺鞨兵, 比羽之衆, 靺鞨反人 등이 포함되고 걸걸중상과 걸사비우를 李盡忠의 餘黨이라고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발해의 건국과정에는 3차의 정착지 이동이 있었는데, 이들이 경과한 지역으로는 高句麗, 營州, 遼水, 遼東·高麗故地·天門嶺 서쪽(1차 정착지), 천문령 동쪽(2차 정착지), 挹婁故地(桂婁故地)·太白山 동북·奧婁河·東牟山(3차 정착지-건국지) 등이 등장한다.

그러면 다음에는 발해의 건국과정에서 3차에 걸친 정착지 이동을 거치면서 각 시기별로 어느 지역의 어떠한 세력이 참여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48) 鳥山喜一, 앞의 책 pp. 40~41 참조.



## IV. 渤海建國時 參與集團의 分析

발해의 건국에는 계통적으로는 고구려계와 말갈계의 다양한 여러 집단이, 지역적으로는 遼西의 營州에서 松花江, 沿海州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고구려 멸망 후 698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역사상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들을 분리, 서술하는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초래된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참여집단을 동주집단, 천문령전투 이전에 참여한 집단, 건국 전후에 참여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sup>49)</sup>

### 1. 東走集團

營州에서 萬歲通天 중 이진충의 반란을 계기로 696년 중반 이곳을 벗어나 동주한 집단은 고려별종 집단과 말갈 결사비우의 무리, 그리고 高麗餘種이었다. 이들 집단의 동주전의 실태에 대하여 《구당서》, 《신당서》, 《오대회요》의 발해전에는 대조영의 行蹟을 짐작케 하는 기록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며, 그것도 3書가 서로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서도 확인하였듯이 《오대회요》의 “唐總章中 高宗平高麗 徙其人 散居中國”(나-②)은 《구당서》의 “高麗既滅 祚榮率家屬徙居營州”(가-②)와 대동소이한 내용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구당서》에서는 이주자와 이주지역을 대조영과 그 家屬, 營州로 명시하였으나 《오대회요》의 기록에서는 唐이 중국에 散居시킨 고구려의 일부인 듯이 표현되어 있는 차이가 있다. 결국 兩書의 기록은 당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 주민들을 중국에 이주시키는 가운데 대조영의 가속도 여기에 포함되어 영주에 거주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고려별종 집단이 徙居된 營州는 당이 고구려유민을 唐 內地로 옮길 때 반드시 거치는 지역이었다. 7세기 중반 이후만도 당 太宗이 고구려 침공에 실패하고 후퇴하면서 遼·蓋, 岩州의 民戶를 징발해 갔는데 이때 당 내지로 옮긴 이가 7만명이었고, 669년에는 고구려 중심지인 평양 일대와 요동지역의 주민 가운데 豪強한 民戶 38,200戶에 대한 대규모 강제 遷徙를 단행하며 당 내지의 江·淮以南 및 山南, 并州·涼州以西의 諸州로 移住시켰는데, 이때 陸路로 徙居된 자들이 거친 곳도 영주였다. 그리고 676년 遼東都督朝鮮郡王에 봉해진 高藏이 얼마 뒤 粟末靺鞨과 反唐舉事를 도모하다 발각되는 사건을 계기로 676년 고장과 함께 이곳에 귀환했던 669년의 고구려유민이 주가 된 豪強한 民戶들을 다시 河南道와 隴右道 등지의 대체로 그전 지역으로 遷徙시켰다.<sup>50)</sup> 결

49) 후술하듯이 營州에서의 東走, 天門嶺戰鬪, 그리고 建國의 세 시기를 전후하여 참여한 집단이 발해의 전체 건국과정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으로 보아 이러한 구분이 무의미한 것은 아닐 것이다.

국 이러한 대규모 천사 도중 일부 유민이 영주에 머물렀을 가능성도 충분히 가정할 수 있으니, 대조영의 경우도 바로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예일 것이 분명하다.<sup>51)</sup>

대조영이 영주로 천사된 시기와 당시의 세력 규모에 대해서는 전하는 기록이 없어 불분명하지만, 일부 史料를 통한 추정은 가능하다. 먼저 《구당서》는 천사 시기에 대해서 ‘高麗既滅’이라 하여 고구려가 이미 멸망한 뒤에 대조영이 사거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오대회요》에는 ‘唐總章中’ 高宗이 고구려를 멸하고 그 유민을 중국에 산거시켰다고 하였는데, 이 기록이 대조영의 徙居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대조영의 천사가 總章中(668~669)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대조영은 7세기 중반 이후 당 내지로 천사된 유민집단 가운데 669년의 遷徙集團의 일부였음이 분명하다.<sup>52)</sup> 그렇다면 사거되기 전 고구려내에서의 대조영집단의 세력규모에 관해서도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겠다. 요컨대 669년 徙居의 대상이 고구려 중심지인 평양과 요동지역의 주민으로서 唐에 저항할 잠재력이 있는 豪強한 무리였으므로, 대조영집단도 이런 부류에 속했었기 때문에 천사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53)</sup> 이와 함께 《三國遺事》와 《帝王韻紀》에 발해 건국자 대조영이 ‘고구려의 옛 장수’라고 기록<sup>54)</sup>되어 있는 것도 대조영이 적어도 고구려의 상당한 귀족 출신으로서 장수 혹은 기타 고위직의 인물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다.<sup>55)</sup> 《구당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사거 될 당시 대조영이 ‘家屬’을 거느렸다고 하여 일정 규모의 人員을 대동하였던 것을 상정케 하는 바이다.<sup>56)</sup>

고려별종 집단과 함께 영주에서 동주한 말갈 걸사비우집단에 대해서는 崔致遠의 〈謝不許北國居上表〉를 통하여 그 연원을 짐작할 수 있다. 최치원은 고구려 멸망 전에 보잘 것 없는 부락이었던 말갈의 족속인 粟末小蕃이 고구려를 쫓아 唐에 內徙하였는데, 그 추장이 걸사비우라고 하였다.<sup>57)</sup> 이것에 따르면 걸사비우집단이 영주

50) 盧泰敦, 〈高句麗 遺民史 研究-遼東·唐內地 및 突厥方面의 集團을 중심으로-〉 pp. 81~92 참조  
51) 김육불은 속말말갈 출신인 대조영 집단이 영주에 徙居된 까닭은 고구려 멸망 전에 突地稽와 같은 粟末部人이 이미 영주에 거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金毓黻, 《東北通史》, 臺灣: 洪氏出版社, 1976, pp. 388~389).

52) “(總章 2 年 夏四月)……高麗之民 多離叛者 勅徙高麗戶三萬八千二百於江淮之南及山南·京西諸州空曠之地 留其貧弱者 使守安東”이라는 기록도 그 하나의 방증이 될 것이다(《資治通鑑》 권201, 唐高宗紀).

53) 박시형은 발해국 성립에서 고구려 멸망 후 요서지방으로 이주한 고구려인 집단의 중심적 역할을 지적하고, 그 투쟁을 지휘한 것이 이전 고구려 무장이었던 대조영이었다고 한다(박시형, 《발해사》 p. 25).

54) “高麗舊將祚榮”(《三國遺事》 권1, 말갈발해조). “前麗舊將大祚榮”(《帝王韻紀》).

55) 박시형, 〈발해사 연구를 위하여〉 pp. 268~269.

56) 宋基豪는 이 家屬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가족’이 아니라 대조영의 지위가 수령 또는 추장이었던 것으로 미루어 일정 규모의 部衆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宋基豪, 앞의 논문 p. 176).

57) “臣謹按渤海之源流也 句驪未滅之時 本爲疣贅部落 靺鞨之屬 寔繁有徒 是名粟末小蕃 嘗逐句驪 內徙 其首領乞四羽及大祚榮等”(崔致遠, 〈謝不許北國居上表〉《東文選》 권33; 《崔文昌侯全集》,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91, 3판). 그런데 이 글에서 걸사비우가 ‘內徙’한

에 거주하게 된 것도 대조영과 마찬가지로 고구려 멸망 이후 강제 천사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이들은 고구려의 對唐戰爭에 깊이 참여하는 등 反唐的인 색채가 강하였기 때문에 당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고구려유민들의 저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구려의 호강한 민호나 반당적 집단을 당 내지로 대규모 강제 이주시켰을 때 그 천사대상에 포함된 집단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겠다.<sup>58)</sup>

또 하나의 동주집단인 高麗餘種은 高麗別種과 마찬가지로 고구려 멸망 후 營州에 사거되어 있었으나 고려별종과 달리 지휘자나 조직이 없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다.<sup>59)</sup> 그런데 李盡忠의 반란시 고구려유민들은 영주에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영주를 벗어나 주변지역으로 탈주해간 무리로 구분되었다. 고려여종은 이 중에서도 영주를 벗어나 요동지역으로 달아나 발해 건국에 일익을 담당할 무리였다. 영주에 사거되어 있던 호강한 고구려유민들은 일정 규모의 인원을 단위로 하여 여러 부류로 편제되어 있었으나, 동주시 高麗別種이 걸걸중상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지휘, 운영되는 등 독립성이 강한 반면에 高麗餘種은 뚜렷한 지휘나 조직에 의해 움직이기 보다는 각개 별개의 소규모 집단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고려여종의 이러한 집단 성격으로 인하여 걸걸중상이나 걸사비우집단과 달리 발해전에 그 主導者의 이름이 보이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상의 세 집단은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696년 거란인 이진충의 반란을 계기로 각각의 무리를 이끌고 東走의 길에 나서 燕郡城(요녕성 義縣), 汝羅守捉(七里河 부근)을 지나 遼河를 건너 遼東의 高麗故地로 향하게 된다.<sup>60)</sup>

## 2. 天門嶺戰鬥 以前에 참여한 集團

동주 이후 천문령전투 이전은 건국과정 중에 遼東의 高麗故地에서의 1차 정착과 李楷固의 토벌군과의 전투, 그리고 천문령 동쪽에서의 唐軍의 격퇴라는 일련의 사건으로 진행된다.

대조영집단이 동주하여 1차로 정착한 곳은 遼水를 건넌 遼東地域으로서 天門嶺 서

시기와 장소에 대하여 고구려 멸망 전 고구려로 내사하였다는 견해(宋基豪, 앞의 논문 p. 177)와 멸망 후 고구려인과 함께 당의 영주로 사거되었다는 해석(石井正敏, 앞의 논문 p. 19와 盧泰敦, 〈渤海國의 住民構成과 渤海人의 族源〉 p. 278)이 있으나, 본 기사에 뒤이어 걸사비우와 대조영 등이 영주에서 탈주한 내용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후자의 해석이 사실에 더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58) 盧泰敦, 앞의 논문 p. 278.

59) 韓圭哲은 高麗餘種을 고구려 멸망 후 강제 徙居된 평양지역의 지배층으로 분류한다(〈渤海建國과 南北國의 形成〉 pp. 166~167).

60) 營州道가 통과하는 지역을 표시한 地圖로는 嚴耕望 撰, 《唐代交通圖考》(5)(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86) 所收 圖 22와 王綿厚·李健才, 《東北古代交通》(瀋陽出版社, 1990)의 附圖 4·5가 참고가 된다.

쪽의 옛 고구려 땅이었다. 그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遼西地方說,<sup>61)</sup> 吉林地方說,<sup>62)</sup> 太子河 유역의 梁水地域說<sup>63)</sup>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요서지방설은 대조영 집단에 대한 唐의 토벌이 요동에 있는 唐軍이 아니라 본토에서 파견된 군대에 의해 서쪽에서 수행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천문령 전투 이전에 이들 집단이 遼西 以東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sup>64)</sup> 그러나 唐의 토벌군이 당의 본토에서 파견되었다고 하여 대조영집단이 반드시 遼西에 있어야 할 것이라는 假定이 《오대회요》와 《신당서》의 기록보다도 중시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요서지방설은 《오대회요》에 “有高麗別種大舍利乞乞仲象 與靺鞨反人乞乞比羽走保遼東 分王高麗故地”(나-③)라고 있듯이 걸걸중상과 걸사비우가 달아나 ‘分王’한 곳이 遼東의 高麗故地라는 기록에 어긋나며, 《신당서》의 “有舍利乞乞仲象者 與靺鞨酋乞乞比羽及高麗餘種東走 度遼水”(다-③)에서 ‘度遼水’라는 내용에도 배치되어 아무래도 무리가 따른다. 또한 이진충의 반란을 틈타 당의 지배를 벗어난 탈주집단인 걸걸중상과 걸사비우집단이 설령 營州에서 얼마되지 않는 거리에 있었다면 이들은 직접적인 討伐의 대상이지 封爵의 대상은 더욱 아닐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즉 唐側으로 보아 이들이 상당히 멀리 달아난 상태였기 때문에 토벌보다는 이들 집단을 자신의 지배하에 끌어넣고, 나아가 契丹軍의 토벌에 이용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봉작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이다.

또한 길림지방설은 동주집단을 粟末靺鞨로 전제 하고 이들이 최초의 근거지로 吉林地方을 삼은 것은 이곳이 그들의 本據地였기 때문이며, 이후 天門嶺을 넘어 間島地方의 西古城子로 달아났다고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발해의 건국지를 현재의 통설인 敦化 부근이 아니라 서고성자로 비정한 立論 도중에 제시된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하여 필자는 동주집단이 1차로 정착한 지역으로서 太子河 유역의 梁水地域이 건국관련 사료나 일련의 건국과정을 감안할 때 가장 합당한 대상지일 것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이 지역은 오늘날 遼陽 부근으로서 1차 정착지로 예시된 遼水 以東이며, 遼東地域이다. 아울러 天門嶺 서쪽이며 옛 고구려 땅으로서 관련 기록에 모두 부합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이 지역은 토지가 비옥하고 木鐵鹽魚의 이익이 있어 국

61) 요서지방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天門嶺의 위치와 관련하여 논자에 따라 차이가 난다. 박시형은 천문령을 遼河를 건너기 이전의 한계 지점으로 추정하고 대조영집단이 천문령전투 전에 요하를 건너지 않았다고 보며(박시형, 《발해사》 p. 23), 盧泰敦은 대릉하 유역 북쪽편의 요서지방을(盧泰敦, 〈渤海 建國의 背景〉 p. 26), 그리고 方學鳳도 천문령을 오늘의 요녕성 창무현 서쪽 산지대의 한계 嶺으로 비정하여 천문령전투 전에는 그 서쪽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方學鳳, 《중국동북민족관계사》 p. 85).

62) 和田清, 〈渤海國地理考〉(《東亞史研究》 滿洲篇, 東洋文庫, 1955) p. 63.

63) 宋基豪, 앞의 논문 p. 203. 新妻利久, 앞의 책 pp. 18~24.

64) 盧泰敦, 〈渤海 建國의 背景〉 p. 26.

가 터전을 마련하는데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던 지역이었다.<sup>65)</sup> 그리하여 발해 멸망 후 耶律羽之가 그 발해유민을 이곳으로 옮기면서 발해의 故鄉이라 지칭한 것도 발해 건국초에 이곳에서 국가기틀을 마련하여 발해 존속기간내에 그 국가 始源의 지역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sup>66)</sup>

한편 영주에 있던 말갈 걸사비우집단도 대조영집단과 마찬가지로 이진충의 반란을 틈타 동주의 길에 나서, 요수를 건너 요동의 옛 고구려 땅에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걸사비우가 기틀을 마련한 곳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을 발견할 수 없으나 영주에서 동주시 대조영과 행동을 같이 하고 唐의 토벌이라는 공동의 敵이 내재한 상황으로 미루어 양측은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자리를 잡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대조영과 걸사비우가 太子河 유역의 遼陽 일대에 기틀을 마련하자 唐은 이들 세력을 인정하고 걸걸중상을 震國公에 걸사비우를 許國公에 임명하게 된다. 이 당시 걸걸중상과 걸사비우의 휘하에는 영주에서 동주시 함께 한 무리 이외에 영주에서 이곳으로 이동하는 도중이나 정착 후 주변 지역에서 참여한 部類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주에서의 동주 당시 이들 집단의 규모가 당의 冊封을 받을 정도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sup>67)</sup> 동주 이후 다시 일정 규모의 인원이 참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걸걸중상과 걸사비우가 冊封을 받을 당시 이들에게는 처음의 동주집단에 요서, 요동지역에 거주하던 고구려유민으로서 동주과정이나 1차 정착지에서 이해고의 토벌을 맞이하기 전에 부분적으로 참여한 집단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걸사비우가 唐의 冊封을 거절하자, 則天이 李楷固에게 토벌을 명한다. 여기서 당이 걸걸중상과 걸사비우를 토벌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은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들이 李盡忠의 반란에 참여한 契丹餘黨임에도 당이 반란 진정에 급급하여 책봉을 하였으나, 697년 6월 孫萬榮의 죽음으로 난이 평정되자 난의 와중에 唐의 기미를 벗어난 대조영과 걸사비우를 응징하여 이전의 당의 지배력을 확립하려는

65) “太宗即位 上表曰……(渤海)遺種浸以蕃息 今居遠境 恐爲後患 梁水之地 乃其故鄉 地衍土沃 有木鐵鹽魚之利 乘其微弱 徙還其民 萬世長策也 彼得故鄉 又獲木鐵鹽魚之饒 必安居樂業……是歲(926年) 詔徙東丹國民於梁水”(《遼史》 권75, 耶律羽之傳).

66) 宋基豪는 이 지역이 대조영이 송화강 지역에서 고구려 멸망전에 이주한 지역인 연유로 營州에서 동주시 이곳으로 이동하였다고 하였다(宋基豪, 앞의 논문 p. 203). 이 밖에 김육불은 이 지역에 大氏의 初祖가 일찍이 있었기 때문에(김육불, 《渤海國志長編》 叢考), 盧泰敦은 발해인의 出自가 고구려유민이기 때문에(盧泰敦, 앞의 논문 p. 10), 그리고 李龍範은 고구려의 桂婁部 일파가 두만강에서 동가강을 거쳐 최후로 도착한 鐵의 산지인 遼陽에서 있다가 고구려가 멸망 후 遼西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遼陽 즉 梁水 지역을 故鄉이라 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李龍範, 앞의 논문 pp. 17~18).

67) 동주집단의 규모에 대하여 김육불은 大氏 一族만이 아니라 突地稽의 千餘 家도 동행했을 것이라 하였고(《渤海國志長編》 叢考), 송기호도 영주를 떠날 때의 고구려인과 말갈인은 기껏해야 수천 명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앞의 논문 p. 203).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sup>68)</sup> 이 때 《오대회요》에서 걸사비우를 설명하여 ‘靺鞨反人’이라 한 것은 영주에 있던 말갈족 중에는 걸사비우집단과 달리 이진충의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집단도 있었음을 암시한다.<sup>69)</sup> 그리고 걸사비우집단의 경우에도 동주과정이나 遼陽 지역에서 정착한 뒤 부근에 거주하던 일부 말갈인들이 합류하여 세력의 확대가 이루어져 당의 책봉 대상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李楷固는 먼저 걸사비우집단을 공격하여 걸사비우를 斬하고 대조영도 격파한다. 이때 이해고가 걸사비우만이 아니라 대조영과도 전투를 벌인 것이 분명한데, 그 근거로서는 《신당서》의 “是時仲象已死 其子祚榮引殘疾遁去”(다-⑤)에서 대조영이 殘疾, 즉 패잔병을 이끌고 달아났다고 한 기록을 들 수가 있다. 여기서 대조영이 전투에서 패한 것은 기록상으로는 이해고의 도벌을 받은 이외에서는 달리 찾을 수 없고, 이와 함께 앞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이해고의 도벌은 걸사비우와 대조영 모두가 대상이었던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해고와의 1차 전투에서 패한 대조영은 패잔병<sup>70)</sup>을 이끌고 遼陽 부근의 1차 정착지에서 天門嶺을 넘어 도주한다. 대조영이 천문령을 넘어 이동한 곳은 앞의 1차 정착지가 어느 정도 앞날을 내다본 지리적 조건을 감안한 擇地였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즉 唐의 추격군을 따돌리는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였던 관계로 일시적인 도피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sup>71)</sup>

그러나 이해고가 걸사비우를 참한 뒤 계속 천문령을 넘어 공격해오자 대조영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게 된다. 이때 대조영이 아우른 무리는 ‘高麗靺鞨之衆’(가-⑥), ‘高麗靺鞨兵’(다-⑥)으로서 《구당서》와 《신당서》의 기록은 표현만 다를뿐 실상은 같은 무리로 생각된다.

여기서 高麗之衆(高麗兵)의 실체에 대해서는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천문령 서쪽에서 이해고에게 패한 이후 천문령 동쪽의 2차 전투 이전에 새로이 편입한 집단일 경우이고, 둘째는 이들이 대조영의 原集團(1차 정착지에서 거느린 집단)의 패잔병일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營州에서 대조영과 함께 동주한 高麗餘種의 존재 이외에는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동주시 뚜렷한 지휘자나 일정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대조영이나 걸사비우와 함께 동주에 나서 이들이 거주하던 부근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후 李楷固의討

68) 池内宏, 앞의 논문 pp. 8~9. 노대돈, 앞의 논문 pp. 24~25.

69) 古畑 徹은 ‘反人’이란 말이 걸사비우가 對唐 強硬派임을, 大氏集團이 親唐派임을 각각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한다(古畑 徹, 앞의 논문 p. 21).

70) 이때 대조영이 거느린 ‘殘疾’에 대해 池内宏은 걸사비우의 잔이라고 하였으나, 걸사비우 무리는 대조영이 天門嶺 동쪽에서 李楷固를 격퇴할 때에 합류한 것으로 보아야겠다(池内宏, 앞의 논문 p. 9).

71) 송기호는 천문령을 哈達嶺에 비정하고 이해고를 격퇴한 지점을 輝發河유역으로 추정한다(宋基豪, 앞의 논문 p. 206).

伐軍이 닥치자 天門嶺 동쪽으로 달아나 대조영에게 합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sup>72)</sup> 그리고 두번째의 설명은 발해 건국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앞의 高麗餘種의 존재를 부정하는 잘못이 초래되고, 대조영이 자신의 패잔병들을 승併했다는 중복 설명이 되어버려 성립되기 어렵다. 그리고 靺鞨之衆(靺鞨兵)은 이해고에 패한 걸사비우의 무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오대회요》(나-⑤)와 《신당서》(다-⑦)에는 걸사비우의 무리가 대조영이 이해고를 격퇴한 이후에 참여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이것은 靺鞨之衆, 靺鞨兵으로 표현된 걸사비우의 무리를 재차 설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천문령 동쪽에서 2차 정착을 하는 시점에서 대조영집단은 高句麗系와 靺鞨系의 連合兵的 성격을 띠게 된다. 고구려계에는 영주로부터 행동을 같이 한 무리인 高麗別種과 高麗餘種(高麗之衆, 高麗兵)에 영주에서 천문령으로 이동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참여한 무리가 혼재된 집단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말갈계는 영주에서 동주한 걸사비우집단의 패잔병이 주축을 이루면서 동주 이후 부분적으로 참여한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리하여 營州 탈주 후 별개의 집단으로 활동하던 대조영집단과 걸사비우집단은 이해고와의 1차 전투 이후 대조영의 기치 아래 하나로 연합하여 천문령 동쪽에서 이해고가 겨우 몸만 빠져 달아날 정도의 대승을 거두어 발해 건국 과정 중의 최대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sup>73)</sup> 결국 고구려계와 말갈계 양 세력은 唐의 추격이라는 공동의 위협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합하였으나, 말갈계가 그 지도자인 걸사비우가 죽은 반면 고구려계는 대조영이 용맹스럽고 用兵을 잘함으로써 계속 그 세력을 확대할 수가 있었다.

말갈계와 고구려계가 연합한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모두 당의 통제를 벗어나려는 신념에서 뿐 아니라, 고구려 멸망 전에도 고구려인과 말갈인들이 서로 협조한 친밀한 역사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sup>74)</sup>

### 3. 建國 前後에 참여한 集團

천문령에서 이해고의 추격군을 격파한 대조영은 契丹과 奚의 突厥 귀속으로 길이 막혀 唐의 討伐이 불가능해지자 그 무리를 이끌고 다시 동쪽으로 이동하여 읍루의 옛 땅을 차지하고, 오늘날 吉林省 敦化市 부근의 城山子山城으로 비정되는 東牟山에 축성하고 거주한다. 이후 대조영이 용맹스럽고 용병을 잘하자 새로이 말갈의 무리와

72) 또한 천문령 서쪽의 1차 전투로부터 천문령 동쪽에서의 2차 전투시까지는 전후 사정으로 미루어 양 전투 사이에는 짧은 시간속에서 숨가쁜 추격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도 위의 기록에 보이는 高麗之衆(高麗兵)이 달리 존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73) 박시형은 천문령전투의 시기를 698년 초경으로 추정한다(앞의 책 p. 23).

74) 韓圭哲, 〈渤海의 對外 關係 研究-新羅와의 關係를 中心으로-〉 pp. 24~25.

高麗餘燼이 점점 귀속해 온다. 여기서 이들 새로운 참여집단은 크게 보아 고구려 멸망 후에도 원래 東部滿洲地域에 머물러 있던 이들과 외부에서 이곳으로 移入해 들어온 住民이 있었을 것이다.<sup>75)</sup>

먼저 고구려유민으로는 7세기 후반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소수의 高句麗族과 原高句麗의 서·남부 지역에서 戰亂을 피해 소규모이면서 간헐적으로 이입해 들어와 각지에 散居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며<sup>76)</sup> 말갈의 무리로서는 원거주지에 남아 있던 속말말갈 이외에 백산말갈, 백돌부, 안거골부, 호실부 등이 이러한 부류에 속하였을 것이다.<sup>77)</sup>

그런데 崔致遠의 〈謝不許北國居上表〉에는 발해 건국 전후에 참여한 집단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이 실려 있다. 검토의 편의상 아래에 원문과 함께 필자의 해석을 덧붙인다.

臣謹按渤海之源流也 ① 句驪未滅之時 本爲疣贅部落 靺鞨之屬 寔繁有徒 是名粟末小蕃 嘗逐句驪內徙 ② 其首領乞四羽及大祚榮等 至武后臨朝之際 自營州作孽而逃 輒據荒丘 始稱振國 ③ 時有句驪有燼 勿吉雜流 梟音則嘯聚白山 鷗義則喧張黑水 ④ 始與契丹濟惡 旋於突厥通謀

(臣이 삼가 살피건대, 발해의 源流는 ① (고)구려가 멸망되기 이전 본시 보잘 것 없던 부락인 靺鞨의 族屬이 번성해져 粟(粟)末小蕃이라 불렀는데 일찍이 (고)구려를 쫓아 內徙하였다. ② 그 수령 걸사(비)우 및 대조영 등이 (則天)武后 치세 때에 이르러 營州로부터 죄를 짓고 달아나, 문득 荒丘를 차지하고 비로소 振國이라 칭하였다. ③ 그때 句驪遺燼과 勿吉雜流가 있어, 올빼미가 우니 白山에 모여들고, 솔개가 날개를 펼치니 黑水에서 떠들썩하였다. ④ 처음에 契丹과 惡을 행하고 이어서 突厥과 通謀하였다.)<sup>78)</sup>

위의 글은 897년 발해왕자 大封裔가 발해의 席次를 新羅보다 상위에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唐이 이것을 거절한 爭長事件에 대한 新羅王의 감사를 나타내는 내용으로 발해 건국에 관한 제 1등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sup>79)</sup> 먼저 ①은 걸사비우집단의 來源에 대한 언급이고, ②는 東走集團이 振國을 건국하는 내용, ④는 거란·돌궐과의 교섭을 알려주는 기사이다. 그리고 발해 건국 전후에 참여한 집단을 ‘句驪遺燼’과 ‘勿吉雜

75) 698년 高德武의 安東都督 임명 후 “自是高麗舊戶在安東者 漸寡少 分投突厥及靺鞨等”이라는 舊唐書》 高麗傳의 기록은 당시의 이러한 상황을 잘 전하고 있다.

76) 盧泰敦, 〈渤海 建國의 背景〉 p. 10과 同, 〈渤海國의 住民構成과 渤海人の 族源〉 p. 266 참조.

77) “其白山部素附於高麗 因收平壤之後 部衆多入中國 汨咄安居骨(號)室等部 亦因高麗破後 奔散微弱後無聞焉 縱有遺人 竝爲渤海編戶”(《舊唐書》 권199下, 靺鞨傳).

78) 崔致遠, 〈謝不許北國居上表〉(《東文選》 권33 ; 《崔文昌侯全集》 所收).

79) 石井正敏, 앞의 논문 pp. 19~20.



流'라고 구체적으로 거명한 주목할 부분이 ③이다. 최치원은 여기서 구려유신을 올빼미와 白山으로 설명하고, 물길잡류는 술개와 黑水로 표현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최치원이 건국 전후에 참여한 집단을 백산 지역의 구려유신과 흑수지역의 물길잡류 두 집단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산은 《新唐書》에 太白山 혹은 徒太山, 《契丹國志》에 長白山, 《遼史》에 白山으로 표시된 현재의 백두산이며, 흑수는 後漢에서 晉末까지는 弱水, 南北朝時代에는 速末水, 隋·唐代에는 粟末水 또는 黑水로, 그리고 遼代에는 鴨子河·混同江으로 불린 오늘날의 松花江을 가리킨다.<sup>80)</sup> 그렇다면 최치원은 발해의 건국에 태백산 지역의 高句麗遺民<sup>81)</sup>과 속말수 지역의 주민, 즉 粟末靺鞨<sup>82)</sup>이 참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다. 다시 말하면 최치원은 발해 건국에 참여한 집단과 이들이 거주한 지역을 二元的으로 認識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발해 건국에 백산지역의 고구려유민들이 일정한 역할을 하였음은 《三國遺事》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삼국유사》 靺鞨渤海條에는 “儀鳳 3년(678) 高宗 戊寅에 고구려의 남은 자손들이 한데 모여 북쪽으로 太白山 밑을 의지삼아 나라 이름을 渤海라 하였다”는 〈三國史〉의 내용<sup>83)</sup>과 “고구려의 옛 장수 대조영의 성은 大氏니 남은 군사를 모아 太白山 남쪽에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발해라고 하였다”는 〈新羅古記〉<sup>84)</sup>의 설명이 게재되어 있다.<sup>85)</sup> 요컨대 〈삼국사〉와 〈신라고기〉의 기록에서도 태백산지역의 고구려유민이 발해의 건국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등, 발해의 건국과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결국 최치원의 〈謝不許北國居上表〉를 통하여 대조영이 東牟山에 築城한 뒤 새로이 참여한 高麗餘燼<sup>86)</sup>과 말갈의 무리는 태백산 지역의 고구려유민과 속말수 지역의 속말말갈이 중심적인 집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80) 李東龍, 《東北亞細亞史研究-金代 女眞社會의 構成-》(一潮閣, 1986) pp. 35~44 참조.  
 81) 최치원은 백산 즉 태백산 지역의 고구려유민들이 발해 건국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다른 글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至儀鳳三年 徙其人於河南隴右 高句麗殘孽類聚 北依太白山下 國號渤海”(崔致遠, 〈上太師侍中狀〉《崔文昌侯全集》 所收).  
 82) 말갈 7部 중에 粟末水 부근에 거주한 것은 粟末靺鞨이었다(“其著者曰 粟末部 居最南 抵太白山 亦曰徒太山 與高麗接 依粟末水以居 水源於山西北 注它漏河”《新唐書》 권219, 黑水靺鞨傳).  
 83) 이 부분은 《三國史記》에서 해당 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고려 초기에 쓰여진 〈舊三國史〉를 인용한 것으로 생각된다(宋基豪, 〈발해에 대한 신라의 양면적 인식과 그 배경〉《韓國史論》 19, 서울대 국사학과, 1988, p. 73).  
 84) 이 책의 사료적 성격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작성 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되고 있다(石井正敏, 앞의 논문 pp. 50~51의 주 9 참조).  
 85) “三國史云 儀鳳三年(678) 高宗戊寅 高麗殘孽類聚 北依太白山下 國號渤海 開元二十年(732) 開明皇遣將討之 又聖德王三十二年(734) 玄宗甲戌 渤海靺鞨 越海侵唐之登州 玄宗討之 又新羅古記云 高麗舊將祚榮姓大氏 聚殘兵 立國於太白山南 國號渤海”(《三國遺事》 권1, 靺鞨渤海條).  
 86) 孫進己는 ‘고려여신’을 후대의 발해 西京鴨綠府와 長嶺府가 설치된 구역의 고구려인으로 설명한다(孫進己 저·林東錫 역, 앞의 책 p. 284).

이후 대조영은 聖曆 중인 693년 東牟山에 건국하여 振國王이라 칭하고 突厥과 通交하게 된다. 이때 발해와 돌궐의 통교는 공동의 적인 唐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양측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sup>87)</sup> 건국 전과 달리 건국 후 참여한 집단에 대하여 渤海傳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나, 천문령전투 이후로부터 건국 전에 참여한 말갈의 무리와 高麗餘燼이 일률적으로 건국 이후에는 전혀 歸屬해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동모산에 대조영이 기틀을 마련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移入해 들어왔을 것이다.

## V. 맺 음 말

이상에서 발해의 건국 관계 기사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각 시기별로 참여한 집단을 구명해 보았다. 먼저 발해 건국에 관한 기본 사료인 《구당서》, 《신당서》, 《오대회요》 발해전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건국과정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역사적 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첫째, 고구려 멸망 후 高麗別種인 乞乞仲象(혹은 大祚榮)과 그 家屬이 營州로 사거되어 거주한다. 둘째, 영주에서 萬歲通天 중 거란인 李盡忠의 反亂을 틈타 고려별종 結結중상의 무리와 말갈 結사비우 무리, 高麗餘種이 696년 중반 동주한다. 셋째, 이들 집단이 동주하여 1차로 정착하는 곳은 遼水를 건넌 遼東地域으로서 옛 고구려 땅이며, 《오대회요》의 “分王高麗故地”(나-③)의 ‘分王’은 建國이 아니라 結사비우와 結結중상이 동주하여 각각 許國公과 震國公으로 책봉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넷째, 이 진충의 잔당으로서 당의 책봉을 거절하자, 則天의 명을 받은 李楷固는 697년 후반 먼저 結사비우를 참한다. 다섯째, 結結중상을 대신한 대조영 자신도 이해고와의 1차 싸움에서 패하자 殘瘡를 이끌고 天門嶺 동쪽으로 달아난다. 여섯째, 이해고가 천문령을 넘어 계속 공격해 오자, 대조영은 이 2차 전투에서 高麗餘種과 말갈 結사비우의 남은 무리를 병합하여 이해고를 격퇴시킨다. 일곱째, 唐의 토벌이 불가능해지자 대조영은 그 무리를 이끌고 다시 동쪽으로 이동하여 태백산의 동북 읍루의 옛 땅을 차지, 東牟山에 築城하고 이곳에 거주한다. 여덟째, 이후 대조영이 용맹스럽고 用兵을 잘하자 말갈의 무리와 高麗餘燼이 점점 귀속해 온다. 아홉째, 대조영은 聖曆 중인 698년 건국하여 振國王으로 칭하고 돌궐과 통교한다.

이상의 건국과정에 등장하는 집단은 고구려계와 말갈계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高句麗系統은 高麗別種인 乞乞仲象(혹은 大祚榮)과 그 家屬, 高麗之衆, 高麗兵, 高麗餘燼, 高麗遺殘, 그리고 高麗餘種 등으로 표현되고, 靺鞨系統은 靺鞨酋 乞乞比羽와 靺鞨之衆, 靺鞨兵, 比羽之衆, 靺鞨反人 등으로 지칭되었다. 또한 발해의 건국과정에는 3차의 정착지 이동이 있었는데, 이들이 경과한 지역으로는 高句麗, 營州, 遼水, 遼東·高

87) 盧泰敦, 〈渤海 建國의 背景〉 pp. 27~28.

麗故地·天門嶺 서쪽(1차 정착지), 천문령 동쪽(2차 정착지), 挹婁故地(桂婁故地)·太白山 동북·輿婁河·東牟山(3차 정착지-건국지) 등이 등장하였다.

건국과정에 등장하는 집단을 영주에서의 동주집단, 천문령전투 이전에 참여한 집단, 그리고 건국 전후에 참여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성격을 검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이해에 접근할 수가 있었다. 먼저 東走集團은 고려별종 집단과 말갈 걸사비우의 무리, 그리고 高麗餘種이었다. 먼저 고려별종 집단은 669년의 唐 內地로의 遷徙集團의 일부로서 영주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營州는 당이 고구려유민을 唐 內地로 옮길 때 반드시 거치는 지역이었다. 대조영 집단이 徙居의 대상이 된 이유는 669년의 천사 대상이 고구려 중심지인 평양과 요동지역의 주민으로서 唐에 저항할 잠재력이 있는 豪強한 무리였던 점으로 보아, 대조영집단도 이런 부류에 속했었기 때문에 천사 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걸사비우집단은 崔致遠의 <謝不許北國居上表>에 의하면 고구려 멸망 전에 보잘 것 없는 부락이었던 말갈의 족속인 粟末小蕃으로서 고구려를 쫓아 唐에 內徙하였는데, 이들이 遷徙된 것은 고구려의 對唐戰爭에 깊이 참여하는 등 反唐의인 색채가 강하고 豪強한 무리였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또 하나의 동주집단인 高麗餘種도 고구려 멸망 후 營州에 사거되어 있었으나 고려별종과 달리 지휘자나 조직이 없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각개 별개의 소규모 집단으로 이루어 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696년 중반의 동주 이후 천문령전투 이전 시기에는 遼東의 高麗故地에서의 1차 정착과 李楷固의 토벌군과의 전투, 그리고 천문령 동쪽에서의 唐軍의 격퇴 등과 같은 사건이 전개된다.

대조영집단과 걸사비우집단이 동주하여 1차로 정착한 곳은 太子河 유역의 梁水地域이며, 이 지역은 토지가 비옥하고 木鐵鹽魚의 이익이 있어 국가터전을 마련하는데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던 지역이었다. 대조영과 걸사비우가 太子河 유역의 遼陽 일대에 기틀을 마련하자 唐은 이들 세력을 인정하고 걸걸중상을 震國公에 걸사비우를 許國公에 임명하게 된다. 걸걸중상과 걸사비우가 冊封을 받을 당시 이들에게는 처음의 동주집단에 요서, 요동지역에 거주하던 고구려유민이나 말갈족으로서 동주과정이나 1차 정착지에서 이해고의 토벌을 맞이하기 전에 부분적으로 참여한 집단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걸사비우가 唐의 冊을 거절하자, 則天이 이전의 당의 지배력을 확립하려는 의도하에 李楷固에게 토벌을 명한다. 李楷固는 먼저 걸사비우집단을 공격하여 걸사비우를 斬하고 대조영도 격파한다. 이해고가 계속 천문령을 넘어 공격해오자 대조영은 ‘高麗靺鞨之衆’(가-⑥) 또는 ‘高麗靺鞨兵’(다-⑥)을 아울러 이해고를 대패시킨다. 高麗之衆(高麗兵)은 천문령 서쪽에서 이해고에게 패한 이후 천문령 동쪽의 2차 전투 이전에 새로이 편입한 집단으로서 營州에서 대조영과 함께 동주한 高麗餘種을 제외하고는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靺鞨之衆(靺鞨兵)은 이

해고에 패한 걸사비우의 무리가 분명하다.

따라서 천문령 동쪽에서 2차 정착을 하는 시점에서 대조영집단은 高句麗系와 靺鞨系의 連合兵的 성격을 띠게 된다. 고구려계에는 영주로부터 행동을 같이 한 무리인 高麗別種과 高麗餘種(高麗之衆, 高麗兵)에 영주에서 천문령으로 이동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참여한 무리가 혼재되어 있었고, 말갈계는 영주에서 동주한 걸사비우집단의 패잔병이 주축을 이루면서 동주 이후 부분적으로 참여한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천문령에서 이해고의 추격군을 격파한 대조영은 그 무리를 이끌고 다시 동쪽으로 이동하여 오늘날 吉林省 敦化市 부근의 城山子山城으로 비정되는 東牟山에 축성하고 거주한다. 이후 대조영이 용맹스럽고 용병을 잘하자 새로이 말갈의 무리와 高麗餘燼이 점점 귀속해 온다. 여기서 이들 새로운 참여집단은 크게 보아 고구려 멸망 후에도 원래 東部滿洲地域에 머물러 있던 이들과 외부에서 이곳으로 移入해 들어온 住民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崔致遠의 〈謝不許北國居上表〉에는 발해 건국 전후에 참여한 집단을 ‘句驪遺燼’과 ‘勿吉雜流’라고 구체적으로 거명한 주목할 내용이 있다. 구려유신은 올빼미와 白山(백두산)으로, 물길잡류는 솔개와 黑水(粟末水, 松花江)로 각각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치원이 발해 건국 전후에 참가한 집단과 지역을 二元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로서 태백산 지역의 高句麗遺民과 속말수 지역의 주민(粟末靺鞨)이 그 주인공임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최치원의 〈謝不許北國居上表〉를 통하여 대조영이 東牟山에 築城한 뒤 새로이 참여한 高麗餘燼과 말갈의 무리는 구체적으로는 태백산 지역의 고구려유민과 속말수 지역의 속말말갈이 중심적인 집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후 대조영은 698년 東牟山에 건국하여 振國王이라 칭하고 공동의 적인 唐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양측의 필요에 의해 突厥과 서로 通交하게 된다. 그리고 건국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변 지역에서 고구려유민과 말갈인들이 移入해 들어왔을 것이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考察이 얼마되지 않는 발해 史料에 등장하는 집단 명칭을 다분히 특정 세력에 연결시켜 설명한 感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전체 한국사속에 渤海史의 온전한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자료의 부족만을 탓하면서 발해사 연구를 도외시키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다소간의 논리 비약도 주저하지 않았다. 아낌없는 질정을 바란다.